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9.30원 하락한 1,116.60원에 마감

14일 환율은 전일대비 9.30원 하락한 1,116.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40원 하락한 1,121.50원에 개장했다. 글로벌 달러 약세에 겹 다운 출발한 환율은 예상보다 적은 역송금 수요에 1,12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였다. 점심시간 무렵 네고물량 유입에 낙폭을 확대하며 1,120원대를 하회하였고 현대건설의 중공업 수주 소식이 전해지자 환율은 장중 내내 하락하며 장 막판 1,115.80원까지 저점을 낮추었다. 이후 소폭 상승하며 전일 대비 9.30원 하락한 1,116.6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25.64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21.50	1123.50	1115.80	1116.60	1119.9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30.73	1032.00	1023.09	1024.21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45.15	1346.09	1334.10	1337.51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4	-0.12	-0.67	-1.58
결제환율(수입)	0.2	0.8	0.79	0.82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외국인 배당 역송금 경계 속 수급에 주목...1,110원대 중후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16.60원) 대비 0.65원 하락한 1,116.10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삼성전자 배당 역송금 물량 유입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외국인 배당금이 7조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배당 지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예년보다 배당금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역송금 수요가 미리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에 상승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뉴욕증시에서 다우를 제외한 주요 지수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마감하면서 위험선호심리가 둔화된 점은 환율 상승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달러화 약세 및 중공업 수주 물량을 비롯한 네고 유입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13.67 ~ 1119.33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050.0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65원 ↓ ■ 美 다우지수 : 33730.89, +53.62p(+0.1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8.7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265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